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6호 [무게 제24404호] 주제 102(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청천강을 배배강, 전기강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무력성 산하단위 부원 한영민, 철도과학정보연구소 실장 북명현은 힘있는 지원으로 발전소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조선통령경제연합회 문서원 로수연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돌격대원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으며 태천군 학봉리 박정희도 년로한 몸이지만 건설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였다.

당의 전진적호소를 가슴깊이 새기고 건설장으로 달려간 계급교양관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혜원, 평성려객배스감독 및 주차장관리소 로동자 윤은순은 들끓는 현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왔다. 평양측량지질설계연구소 설계원 리경희, 봉화산리관 로동자 김명미, 조선로리협회 부원 김철남은 발전소건설에 적은 힘이 나마 이바지할 일념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어갈 열의드높이 보통강구역 편의봉사사

업소 로동자 장미희는 발전소건설지원사업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인민문화궁전 로동자 최미경도 돌격대원들을 혁신창조로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철도성병원 의사 김인길, 철도성 산하단위 로동자 주예경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건설장의 벅찬 숨결에 마음을 합치며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위업을 충성다해 받들어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헌신할 결의에 넘쳐나 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알제리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새해 인민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는 선물은 16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주재 103(2014)년에 즈음하여 알제리대통령이 선물을 드리는 선물에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국 제 사 회 계 가 격 찬
국제사회계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천출명장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위업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팔레시아의 <광명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대 조선이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압살책으로 시련을 겪던 시기 불멸의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민중적하게 수호하시었다. 그의 선군정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혁명의 명맥을 지켜냈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불멸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고 조선은 그 어떤 적들도 범접 못하는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었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엔> 인민통일공화국중앙사회 위원은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신 탁월한 정치가, 강철의 명장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이이께서는 군대는 곧 당이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군정치는 오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하여 조신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도발과 경제적봉쇄, 그 어떤 세계적인 정치외교에도 끄떡하지 않는 정치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우루파이신문 <라 후엔부드>는 조선의 선군정치는 정치, 군사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분야에서도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높이 든 인민군대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돌파구를 열어가고 있다.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고 인민들이 혁명적군정정신을 따라배우는 속에 조선의 전통적인 군민단결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강성국가건설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면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정일동지처럼 브라질워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도는 참으로 놀라운 결실을 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4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물고기잡이창고와 물고기 팽 통저 장비를 돌아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는것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군인

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자고 하시며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이이께서는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가 충성의 보고를 올리고 최고사령관과 기념사진도 찍자고 하시며 그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었다. 이이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자고 군인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통신은 또한 조선의 김정일동지께서 고 김구태의 영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영구앞에 놓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인을 추모하여 목상하신 다음 혁명전사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라고 영구를 돌아보시었다. 이이께서는 이어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어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었다. 일본의 지지통신, NHK방송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트홈페이지인 신화망, 광명망, 동북망과 만마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설계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중국의 홍콩방송위성TV방송, 카타르의 알자라 위성TV방송,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공을 앞둔 마시영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분출 새로 나온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에 대한 각계의 반향 영원히 원수님만을 과학기술로 받들어가리 천만의 마음을 틀어잡은 시대의 명곡

어제 당보를 펼쳐서 우리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불할수 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해빛같이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의 구절구절을 새기면서 우리 과학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참으로 훌륭한 명곡이 태어났다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조선로동당기발이 휘날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과학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과학기술사업은 조국의 만반대개를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

의 품속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성장해온 날들은 영광과 행복으로 이어진 환희의 나날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친 과학자들과 함께 우리 당기발이 펄펄 휘날리는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앞에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큰일을 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선경거리로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와 세상에 없는 궁궐같은 살림집도 통째로 안겨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국가과학원이 자랑하고있는 과학자거리도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을 지어주셨다고 하신 따뜻한 말씀을 받아안았을 때에도, 지난 11월 이이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우리모두의 가슴속에는 우리의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호모의 정이 짙어지고 영원히 그리움을 받을 신념의 맹세 가 더욱 굳게 간직되었다. 참으로 과학자들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들모두를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하늘같은 믿음이 있어 오늘 우리 과학자들의 긍지와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천근간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정, 크나큰 사랑이 그대로 되돌아 올릴 줄 모르는 원천이 되고 꺼질줄 모르는 열정의 불길 이 되어 우리 과학자들은 멀고 험한 과학탐구의 길에서 주지와 동요를 모르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하여 피터져 사색하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 당, 전 군, 전 민이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 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뜻뜻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과 같이 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당보 1면에 실린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는 제목부터 우리 인민모두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 울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을 떠나서는 안 할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의 심정을 그대로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지금 온 나라 감성이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 있다. 이 노래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

을 위해 힘차게 싸워갈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와 철석의 의지를 잘 반영한 시대의 명곡이라고 생각한다. 가사의 구절구절을 외워볼수록 지난 9월 우리 보전성 일군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다시금 들려오는듯하다. 선군시대 일군으로서 응답 할 일을 한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못내 대견하게 여기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도 또다시 험한 시간을 내시어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뜨거운 정에 목매어 올랐다. 천근간 신이 그의 정이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울려들었고 자라게나그리운 태양의 모습이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그 위대한 정이 세계가 가사의 구절구절에도 그대로 비껴갔는것으로 하여 노래는 나오자마자 우리 일군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천수님들을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모습, 그이의 따뜻한 정, 그이의 넓은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들이다. 이것은 우리 보전성 일군들의 정서만이 아니라 모든.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에는 바로 이런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 잘 반영되어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고 이 세상 끝까지 충성다해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 우리 성일군들은 이 노래를 언제나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명도를 받들어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도록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 쟁거리 바쳐가겠다고 굳게 결의한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진정이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송가

당보 1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과 함께 편집된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진정을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있게 형성한 시대의 걸작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의 명도밑에 혁명이 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는다.> <천근간신 그의 정 가슴에 흘러 지나가니 그 슬픔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노래의 첫 부분부터 이것이야말로 사회발전이기에 전에 우리의 생활이 고 천만군민의 마음속웨침이라는 경탄이 저도모르게 터져 오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전부터 노래 <발걸음을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팔없이 신뢰하여왔다. 노래를 통하여 백두산장군의 기상과 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의 새겨안은 천만군민은 피눈물의 12월에 한겨울의 추위도 가셔버리는 봄빛같은 사랑의 세계를 가슴한가득 받아안게 되

었다. 민족의 대극상을 당한 때에 인민들을 격정하시며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줄때 대한 간곡한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날과 달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사랑과 정이었다. 위대한 수령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이 우리 마음 제일 잘 알고 그 언제나 우리 행복을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어왔기에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받아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예로부터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으로 자랑났고 주체 100년대와 더불어 선군으로 존엄높은 강국으로 위용떨쳐왔다. 아름다운 산천도, 나라의 국력도 우리에게서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며 원수들의 것은 반공화국적동족

에서도 우리 사회주의가 깎뚫렸던것이며 온 세상이 부러움에 사회주의의 문명개척기를 펼쳐 나가고있었다. 우리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서 제일 큰 충격을 받게 되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호모심이다. 그 이는 일러와 고장을 찾아 가도 작가라고 하면 제일먼저 들려주는것도 또 물어보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본 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적시는 사람들 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격정을 더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시대적의무를 더 깊이 자각하는 우리 작가들이다. 우리 소설가들은 주제문학건설의 나날에 절세의 위인들을 형성한 총서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자로서 인민사랑의 전설이 수놓아진 초초와 단원들을 찾

위대한 시대를 노래하는 명곡풍년을 안아오겠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정은 동지는 혁명의 명도자,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 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며 탄복하고있습니다.> 지난 21일 당보 1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편집된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받아안은 우리 만수대에출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금 형언할수 없는 흥분과 격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의 뜻,

정하며 탄복하고있습니다.> 지난 21일 당보 1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편집된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받아안은 우리 만수대에출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금 형언할수 없는 흥분과 격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의 뜻,

노래는 바로 이러한 전인민적 사상감정을 웅장한 높이에서 울뚝히 구가하고있다. 온 세상을 향해 터치는 천만군민의 우렁찬 웨침과 같은 가사도 걸작이지만 끝없는 매혹과 신뢰, 더없는 환희와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으로 가득찬 선율도 명실공히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이 그토록 진실하고 확신에 찬것이기에 노래는 그처럼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명곡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런 명곡들이 생겼을 법이다. 우리 만수대에출단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팔없이 신뢰하고 호모하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명곡창작에 힘껏 박차를 가하겠다.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시대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시대를 경애하는 명곡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것으로써 력사 앞에 지닌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가겠다. 만수대에출단 인민예술가 조 일 루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군인들 -김정성영양방직공장 합숙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박호철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우리 장군님 물려주신 귀중한 혁명유산

내 조국 땅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심대의 대오가 굽어지고있다.

—우리는 김정은 원수님밖에 모른다!

이것은 당과 혁명대오를 더욱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굳건히 다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체침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한중도 못되는 친화적의 만고역적 무리들인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정벌한 사변은 천만군민 모두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서 산악같이 일파하게 하였다. 그 어떤 찬지풍파가 타격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며 그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갈 절대불변의 의지가 활화산처럼 세차게 분출되고 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절감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젖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끈끈하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어떤困難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혁명의 천하지대본—일심단결! 바로 여기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력사에 길이 빛날 가장 위대한 공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령력히 빛날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을 마련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큰 업적중의 업적이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일찌기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김혁명동지는 일심단결을 좌우명으로 삼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훌륭한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두고 세계의 정치인들은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보다도, 지어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다고 말하고있다고,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무가아말로 김정일동지의 힘이며 주체조선의 힘이라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을 혁명의 강위력한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장장 수십성상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의 일심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단결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존재한 각종 파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종파문제는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통일단결과 관련된 근본문제라고, 다시말하면 당의 존망,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지나온 력사는 종파분자들 배신자들이 당의 파괴자이며 혁명의 배신자이므로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대해서는 제때에 철수를 내려야 한다고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력사적으로 종파분자들이 혁명운동에 끼친 죄책에 대하여 준벌히 폭로하시고 나서 이렇게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통일을 고수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혁명의 최고근수이며 당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해야 합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부터 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치자! 당내 분파적요소를 추호도 허용하지 말고 무자비하게 투쟁하자! 단결은 승리이며 분열은 멸망이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지키자!

이것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온 우리 당과 인민이 찾은 피의 교훈입니다. ... 조선혁명을 책임지실 숭고한 사명을 안으신 그대에 벌써 어머니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를 확고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한 수명을 중심으로 한 단결문제를 혁명투쟁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연제가 한 단위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시고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합장시에 오르지 일심, 앞에서도 한마음, 뒤에서도 한마음, 바로 누워서도 한마음, 돌아누워서도 한마음, 꿈을 꾸어도 통상이동이 아니라 통상일동이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교양적기치가 있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평가의 말씀은 비록 짧지만 거기에는 혁명의 한길에서 오직 수령만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전사의 자세로 령도자와 뜻을 같이하여야 한다는 깊은 의도가 담겨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에서 일심단결에 관한 자신의 사상을 명백히 포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단결은 일심단결이라고,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자신께서는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업무를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일심단결을 혁명의 무기로 튼튼히 틀어쥐었고, 일심단결을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만방과 맞서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혁명업을 완성하기 위한 대진군을 다그치라고하셨고,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일심단결, 이는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영도의 실천속에서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혁명철학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일심단결의 사상은 그대로 시대의 변찬 승결과 의지가 되고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구호로 되었다.

혁명의 천하지대본이 일심단결이라면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동지적관개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곧 단결을 안아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철학, 믿음의 정치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대화목을 우리 혁명대오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실현하시였다.

어느해 2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동무들을 끌어오 믿는다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새겨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충신을 낳고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원천이다, 나는 믿음으로 동지를 구하고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대오를 꾸러내었다, 믿음으로 충신의 대우를 꾸러내는것이 나의 정치이다, 바로 여기에 믿음에 관한 나의 철학이 있다고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혁명의 한길에서 변성을 모르는 영원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일심단결의 대오, 충신의 대우를 꾸러우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볼보다 뜨거운 믿음과 사랑속에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혁명철학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만방과 맞서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혁명업을 완성하기 위한 대진군을 다그치라고하셨고,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일심단결, 이는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영도의 실천속에서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혁명철학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일심단결의 사상은 그대로 시대의 변찬 승결과 의지가 되고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구호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일심단결의 사상은 그대로 시대의 변찬 승결과 의지가 되고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구호로 되었다.

김에서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오늘날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발전조건설정형태도 철거세대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중시하시며 그들을 위해 배려해주신 다심한 은정, 세대군인 안해의 귀속말도 들어주시며 태어나게 될 애기의 이름도 지어 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한 기계공장에 오시여 로동계급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신심을 주시여 줄줄였던 공장애 생산활성화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신 사연...

사랑과정이 안겨지고 매혹과 흠모가 따라서서 믿음과 그리움이 넘쳐나 격려하는 이 일심의 대화속에서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불멸의 힘이 총폭발되고 그 일심의 위력이 사회주의강성부흥의 대기로 열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행생을 바쳐 기록하신 일심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대오의 귀중한 유산이며 여만에도 비기치 못할 백두산대군의 가장 큰 재부이다.

주체혁명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일심단결은 더욱더 중요한 장군님의 이런 볼보다 뜨거운 믿음과 사랑속에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혁명철학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만방과 맞서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혁명업을 완성하기 위한 대진군을 다그치라고하셨고, 일심단결의 위력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울수 있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다고,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일심단결, 이는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영도의 실천속에서 새롭게 밝히신 위대한 혁명철학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일심단결의 사상은 그대로 시대의 변찬 승결과 의지가 되고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구호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일심단결의 사상은 그대로 시대의 변찬 승결과 의지가 되고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구호로 되었다.

올해의 대진군길에 빛나는 거룩한 자욱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올해 1월 중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건설하고있는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병원에 꾸러진 중앙홀을 지나 《대추는 곳》이라고 쓴 명찰이 붙은 방안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일군들에게 명찰들은 우리 글과 함께 국제공용표기도 함께 해주는데 좋겠다고 나직이 이르시였다.

그때까지도 일군들은 그이께서 하신 그 말씀에 어떤 송과한 뜻이 담겨져있는가 하면 송과한 미치 헤아릴수가 없었다.

이날 병원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윤리가 담겨진 뜻깊은 가르치심을 다시금 지켜보는 일군들의 가슴에는 그의 송과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평양시의 중심에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건설하게 되는데 대성산종합병원을 건설하면서 어떤 좋은 경험을 받아들여 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 창조되는 모든것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윤리가 담겨진 뜻깊은 가르치심을 다시금 지켜보는 일군들의 가슴에는 그의 송과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뜻깊은 표창 수여식

올해 2월 15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새로 제정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수여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력혁신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안겨주시는 절세인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받아안은 표창자들은 물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환희에 넘쳐 솟구치는 격정을 절감할수가 없었다.

몸소 수여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장군님의 행보는 조국의 투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천만군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첩고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선군혁명업계의 최후승리를 위해 혁명적 사투리를 기어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의 힘이었다.

이날 수여식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절세인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받아안은 표창자들은 물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환희에 넘쳐 솟구치는 격정을 절감할수가 없었다.

백두령장의 철의 선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제도 방위대와 무도영양방위대를 또 다시 찾으신것은 올해 3월 7일 이른 새벽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제도방위대와 무도영양방위대를 돌아보면서 전투원들이 싸움을 예견하여 튼튼히 다져진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시면서 만단의 전투인태세를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제도방위대와 무도영양방위대 군인들이 적들의 엄격일몰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고 하여 그의 자추원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

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설멸적인 반격태세를 가함으로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를 쏘아,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을 울리라!

정경 그것은 선군의 총대로 미제와 남조선적발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이 땅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기어오르시려 오시려! 백두산출몰명장의 위대한 철의 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군장병들에게 안겨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이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칠레공화국 대통령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선인안교 칠레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미첼레 바첼레뜨 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칠레공화국 대통령으로 또다시 당선되셨고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들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하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

피혁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업에 실속있게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업에 실속있게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나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강습은 과거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기본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건설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나가는데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받아안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전체 인민들은 크나큰 격정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위대한 대변영기를 건설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가까운 기간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고 21 세기의 새로운 문명화국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할 중대하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결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산악같이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올해에 건설부문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대로 인민생활과 관련한 대상을 둘 많이 건설할것을 건설부문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대강건설을 세계적으로 표본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건설장들을 찾다찾다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발전조건설장을 찾으신 사연

연제가 한 단위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시고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합장시에 오르지 일심, 앞에서도 한마음, 뒤에서도 한마음, 바로 누워서도 한마음, 돌아누워서도 한마음, 꿈을 꾸어도 통상이동이 아니라 통상일동이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교양적기치가 있는 아주 좋은 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행생을 바쳐 기록하신 일심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대오의 귀중한 유산이며 여만에도 비기치 못할 백두산대군의 가장 큰 재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행생을 바쳐 기록하신 일심단결이야말로 우리 혁명대오의 귀중한 유산이며 여만에도 비기치 못할 백두산대군의 가장 큰 재부이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평형혁명사적지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평형혁명사적지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평형혁명사적지에서—

주체적건축발전의 새로운 전환이 리정표를 아로새긴 력사적인 대강습

도전을 가한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아 나가며, 기적과 전변을 이룩하여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일찌기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던 한 뜻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주체 건축의 새 력사를 펼쳐시키고 세계적인 락우와 인공이 지배하던 이 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오시였다.

장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 사와 사회주의대건설의 일대 양기를 열어나가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최발발전조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시며 불멸불욕의 로고를 바쳐 오시였다. 이 날에 인류건축사가 잊지 못하는 주체적이민적인 건축사상과 리론이 정립체계화되고 나라의 건축발전사업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령도업적은 강성국가건설의 초석이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건설방향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근본원칙, 과업과 방도, 풍부한 경험과 본보기들이 다 갖들어있다. 교묘한 사에서가 아니라 거창한 건설실현면에서 창조되고 발전공부화되었으므로 하여 백두산철새위인들의 건축사상과 령도업적은 새기울을 이어가며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갈것은 우리

라보시며 침수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문화주택을 다 지어주고 철거시키되 그전에 쓰고 살던 집보다 더 잘 지어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한 당이고 우리 당의 정치의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정치인것만큼 모든 사업을 인민의 락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그이와 혁명파 건설을 수행하며 의도하지 않고 바리시려고 해나갈수 있다고, 철거하는 주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지 못하면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다고 간곡히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신 발전조건설장을 찾으신 사연이 다름아닌 인민을 위해서였음을 깨달으며 일군들은 그이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을 인생의 최후영웅으로 가슴속에서 새겨넣었다.

우리 당이 결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산악같이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올해에 건설부문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언대로 인민생활과 관련한 대상을 둘 많이 건설할것을 건설부문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대강건설을 세계적으로 표본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건설장들을 찾다찾다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전환적계기가 된것은 참으로 의의로운 일이다.

이번 대강습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품도와 투쟁기풍, 일본래적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주제 10년대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많은것을 체험하며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부강조국건설의 생위한 집적제대 부본발전무장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우리의 주체적건축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자는 것이 강습대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다.

대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우리 당이 구상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설계도가 어떤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하였다.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향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키는데 대한 원칙적준을 과시하려고 하고있다. 습식공법 이 건설법으로 전환된것을 비롯하여 건설시공에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적극적으로 속도와 질이 비할 바없어지고있으며 건설제로부터 문에서 현대과학기술성과를 기초한 여러가지 기능소재들이 적극 개발되고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전환적계기가 된것은 참으로 의의로운 일이다.

이번 대강습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품도와 투쟁기풍, 일본래적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주제 10년대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많은것을 체험하며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부강조국건설의 생위한 집적제대 부본발전무장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우리의 주체적건축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자는 것이 강습대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다.

대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우리 당이 구상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설계도가 어떤것이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하였다.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향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키는데 대한 원칙적준을 과시하려고 하고있다. 습식공법 이 건설법으로 전환된것을 비롯하여 건설시공에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적극적으로 속도와 질이 비할 바없어지고있으며 건설제로부터 문에서 현대과학기술성과를 기초한 여러가지 기능소재들이 적극 개발되고있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축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힘찬 투쟁을 벌여 공화국 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뜻깊게 경축한 올해에 축산업발전의 보다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올해에 세로등판개간전투장과 각지의 축산기지들에서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장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적, 전인민적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들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 건설된 육종장을 여러 차례나 찾으신고 풀먹는집진승기기에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세로등판개간전투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성, 중앙기관, 각 도동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뚜렷게 얼어붙은 땅을 뒤집어 두고 풀뿌리를 걷어내야 하는 개간전투의 시작도 어려웠지만 그 땅을 걸어서 인공물판을 조성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로등판개간전투는 금지를 가슴에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지켜 수행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작곡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1년동안 수만명의 등판개간 및 자연물판정기 진형으로 2천여정보의 인공물판이 조성되었으며 많은 집진승들이 확보되었다. 드넓은 세로등판의 곳곳에 집진승과 살림집들이 계속 건설되고있다.

각지에 꾸러진 목장과 축산전문육종농장들에서도 풀먹는

집진승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는 밝은 전망이 마련되었다.

특히 황주군 삼촌목장에서 풀먹는 집진승이 조성되고 많은 집진승물들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남도 계남목장과 황해북도 은성축산전문육종농장, 평양시 구빈축산전문육종농장에서 집진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켰다.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졌다.

올해에 수도의 대규모고기생산기지에 종합적인 발표력이, 철강제생산공장이 새로 꾸러졌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배양과정, 발효와 건조, 배양이후한,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고온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돼지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신의 주육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고기와 알을 생산을 더욱 늘일 목표를 세우고 단백질이생산기지를 훌륭하게 꾸러갔다.

남양리목과 증체율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한 결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단백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사리원탕공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공장의 일군들은 먹이가공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맞게 로동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신심드높이 펼쳐나선 로동자들의 창조적근로성에 의하여 공장에 능력이 큰 단백질이생산기지가 꾸러지고 수심에 달하는 단백질이 생산됨으로써 년간 축산물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평북지역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근단백질생산이 늘어남에 맞게 새로운 가공방법을 받아들여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켰다. 지금 이들은 이룩한 성과를 기초하여 올해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적은 먹이로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팜오리목장, 구성탕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에서 먹이의 소화흡수율을 높이고 여러가지 비알곡먹이원천을 적극 찾아내어 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결과 적은 먹이로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훌륭한 경험들이 창조되었다.

축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축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축산업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해당 부문 과학자들의 고집어린 탐구와 노력에 의해 우량품종의 집진승들이 늘어나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이 적극 도입되어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었다.

수의방역학자의 과학자들은 집진승전염병예방약을 개발함으로써 전염병을 미리 막고 집진승기르기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놓았다.

지금 세로등판개간전투장과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본사기자 한성일

과일증산의 도약대 마련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 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낸 올해에 과수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발전을 위한 사업은 사면대개의 해나면 안된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농장은 어머니같은데서 특산물 생산을 위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과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수농장에서의 과수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올해 정초부터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이 과일생산성과를 훨씬 높인 과수농장 일군들은 과일나무비

과 원으로 꾸밀 때 대한 어머니장군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열정과 한사람같이 떨쳐나 130여만근의 사과, 배, 복숭아나무들을 집적으로 심어 한개 농장과 맞먹는 면적의 청춘과원을 새로 조성하였다.

북청군 과수농장들의 근로자들도 고향땅을 백과무덤정 사회주의무도원으로 전변시켜갈 애국의 마음으로 가슴앓이 과일나무심기를 근기있게 내밀어 수백정보의 새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다른 과수농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평양과수농장에서는 근 70정보에 달하는 과수원현대화를 실현하여 가까운 앞날에 과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과수원합회사들의 과수농장들에서는 올해 과일나무심기를 넘쳐 수행하였다.

그러하여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철에도 1000여정보의 낫날사파나무밭을 새로 조성해놓고 수천정보의 과수원에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무리없이 기술수준으로 진행하는 혁신적투쟁을 이룩하였다.

올해 정초부터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이 과일생산성과를 훨씬 높인 과수농장 일군들은 과일나무비

배판리에 앞선 경험들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재고들였다.

과수농장들에서는 효능 높은 식물성영양을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막고 과일생산을 부쩍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는 나노살균제를 도입하여 지난해보다 값비싼 농약을 절약하였으며 천연항생충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병해충피해를 막고 무공해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과수농장에서는 농부님들을 가지고 성장추진뿐 아니라 살균, 살충까지 할수 있는 건류액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여 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밭에 진거름과 퇴거름을 주기적 정성적으로 진행되고 판매물도 과일나무의 영양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훨씬 높였다.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는 축산작업반을 잘 꾸려놓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과일생산에 늘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고산, 사리원, 평양과수농장을 비롯한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생산한 맛좋은 과일들을 인민군인들과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지금 각지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화, 집약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보람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음해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높은 고치생산 실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과업을 힘차게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에서 집진승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켰다.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졌다.

올해에 수도의 대규모고기생산기지에 종합적인 발표력이, 철강제생산공장이 새로 꾸러졌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배양과정, 발효와 건조, 배양이후한,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고온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돼지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신의 주육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고기와 알을 생산을 더욱 늘일 목표를 세우고 단백질이생산기지를 훌륭하게 꾸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남새밭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

지난 6월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남새농장을 돌아보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남새은실건설바람이 불고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쓰이고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표준화된 온실설계를 도, 시, 군들에 보내주어 지방의 특성에 맞게 온실을 과학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남새은실건설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이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전국각지에 수많은 남새은실들이 새로 훌륭히 건설되고 개건되었다.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정보당 남새생산을 늘이는데도 올해성과가 높았다.

농업부문의 과학자들은 남새의 재단식 및 다묘작재기술과 계절에 따르는 다수확품종의 남새작물들을 육종하고 재배하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평양시남새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생육기간이 짧고 소출이 높으며, 여름, 가을에도 재배할수 있는 배추를 육종하여 남새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도록 기술보급사업을 조직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앞선 남새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평안남도, 황해북도, 남포시에서는 남새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모기르기기술과 사이그루, 겹재배를 비롯한 여러구루재배방법을 많은 면적에 받아들였다.

고추고랑모듬겨심기방법과 과수성모재배기술을 비롯한 선진영농기술이 널리 도입되었다.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남도, 시, 군들에 보내주어 지방의 특성에 맞게 온실을 과학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모든 시, 군들에서 남새은실건설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이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전국각지에 수많은 남새은실들이 새로 훌륭히 건설되고 개건되었다.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정보당 남새생산을 늘이는데도 올해성과가 높았다.

농업부문의 과학자들은 남새의 재단식 및 다묘작재기술과 계절에 따르는 다수확품종의 남새작물들을 육종하고 재배하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높은 고치생산 실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주체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에서 집진승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켰다.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졌다.

올해에 수도의 대규모고기생산기지에 종합적인 발표력이, 철강제생산공장이 새로 꾸러졌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배양과정, 발효와 건조, 배양이후한,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고온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돼지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신의 주육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고기와 알을 생산을 더욱 늘일 목표를 세우고 단백질이생산기지를 훌륭하게 꾸러갔다.

높은 고치생산 실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주체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에서 집진승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켰다.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졌다.

올해에 수도의 대규모고기생산기지에 종합적인 발표력이, 철강제생산공장이 새로 꾸러졌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배양과정, 발효와 건조, 배양이후한,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고온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돼지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신의 주육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고기와 알을 생산을 더욱 늘일 목표를 세우고 단백질이생산기지를 훌륭하게 꾸러갔다.

과일증산의 도약대 마련

각지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 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낸 올해에 과수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발전을 위한 사업은 사면대개의 해나면 안된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농장은 어머니같은데서 특산물 생산을 위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과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수농장에서의 과수업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올해 정초부터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이 과일생산성과를 훨씬 높인 과수농장 일군들은 과일나무비

과 원으로 꾸밀 때 대한 어머니장군님의 유훈을 하루빨리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열정과 한사람같이 떨쳐나 130여만근의 사과, 배, 복숭아나무들을 집적으로 심어 한개 농장과 맞먹는 면적의 청춘과원을 새로 조성하였다.

북청군 과수농장들의 근로자들도 고향땅을 백과무덤정 사회주의무도원으로 전변시켜갈 애국의 마음으로 가슴앓이 과일나무심기를 근기있게 내밀어 수백정보의 새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다른 과수농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평양과수농장에서는 근 70정보에 달하는 과수원현대화를 실현하여 가까운 앞날에 과일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과수원합회사들의 과수농장들에서는 올해 과일나무심기를 넘쳐 수행하였다.

그러하여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철에도 1000여정보의 낫날사파나무밭을 새로 조성해놓고 수천정보의 과수원에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무리없이 기술수준으로 진행하는 혁신적투쟁을 이룩하였다.

올해 정초부터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이 과일생산성과를 훨씬 높인 과수농장 일군들은 과일나무비

배판리에 앞선 경험들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재고들였다.

과수농장들에서는 효능 높은 식물성영양을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막고 과일생산을 부쩍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는 나노살균제를 도입하여 지난해보다 값비싼 농약을 절약하였으며 천연항생충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병해충피해를 막고 무공해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과수농장에서는 농부님들을 가지고 성장추진뿐 아니라 살균, 살충까지 할수 있는 건류액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여 과일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밭에 진거름과 퇴거름을 주기적 정성적으로 진행되고 판매물도 과일나무의 영양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정보당 과일생산량을 훨씬 높였다.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는 축산작업반을 잘 꾸려놓고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과일생산에 늘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고산, 사리원, 평양과수농장을 비롯한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생산한 맛좋은 과일들을 인민군인들과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지금 각지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화, 집약화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보람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음해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높은 고치생산 실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과업을 힘차게 받들고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에서 집진승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켰다.

각지의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이 벌어졌다.

올해에 수도의 대규모고기생산기지에 종합적인 발표력이, 철강제생산공장이 새로 꾸러졌다. 원료투입으로부터 배양과정, 발효와 건조, 배양이후한,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고온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알곡먹이를 적게 쓰면서도 돼지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신의 주육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고기와 알을 생산을 더욱 늘일 목표를 세우고 단백질이생산기지를 훌륭하게 꾸러갔다.



석탄증산투쟁에 앞장선 혁신자들을 축하해주고있다. -덕천지구관판련합기업소 제남관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작음

해외연교자가족일행들 귀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중국항일혁명렬사장물화동지의 가족일행과 중국항일혁명투쟁연교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일행이 21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석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서기장부조장이 전송하였다.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이 떠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김현환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나갔다.

재미동포전국련합대표단이 떠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김현환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나갔다.

《증양기관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김명옥동무가 우리 공장에 자진하여 내려왔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쉽게 결심할 일입니까. 정말 존경이 가는 동무입니다.》

얼마전 공장을 찾았을 우리에게 지베인 흥애동무가 한 녀성기사를 꼭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였다.

그가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어느 한 증양기관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김명옥동무였다.

자신이 연구개발한 새로운 천연광물항생제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지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저없이 공장으로 내려왔다는 그의 소행은 우리를 몹시 흥분시켰다.

예상했던대로 우리는 그를 생산현장에서 만날수 있었다. 로동자들과 더불어 연구사업에 열중하는 정열적인 모습은 그를 50대의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서 불타고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갖가지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했으며 언젠가 아름다운것입니다.》

대동강고려약공장 김명옥동무

김명옥동무에게는 이 말이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연구하는 새로운 천연광물항생제가 오늘의 현실상천적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지난 10여년간 아글라클 에센 보랍이 있어 그의 연구사업에서는 그즈음 눈에 띄게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기간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새롭게 전개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어느 시작하는것이냐 같았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 못하는 연구가 그대로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수 없어.)

그는 소스라치게 삼성에 깨어났다. 난관앞에서 잠시나마 동요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결연히 일어나 집으로가 아니라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에서는 밤이 지새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이때부터 그의 연구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구자료들을 검토리하는 한편 화학합성으로 생산된 전통적인 항

대동강고려약공장 김명옥동무

김명옥동무에게는 이 말이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연구하는 새로운 천연광물항생제가 오늘의 현실상천적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지난 10여년간 아글라클 에센 보랍이 있어 그의 연구사업에서는 그즈음 눈에 띄게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기간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새롭게 전개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어느 시작하는것이냐 같았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 못하는 연구가 그대로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수 없어.)

그는 소스라치게 삼성에 깨어났다. 난관앞에서 잠시나마 동요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결연히 일어나 집으로가 아니라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에서는 밤이 지새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이때부터 그의 연구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구자료들을 검토리하는 한편 화학합성으로 생산된 전통적인 항

대동강고려약공장 김명옥동무

김명옥동무에게는 이 말이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연구하는 새로운 천연광물항생제가 오늘의 현실상천적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지난 10여년간 아글라클 에센 보랍이 있어 그의 연구사업에서는 그즈음 눈에 띄게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기간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새롭게 전개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어느 시작하는것이냐 같았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 못하는 연구가 그대로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수 없어.)

그는 소스라치게 삼성에 깨어났다. 난관앞에서 잠시나마 동요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결연히 일어나 집으로가 아니라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에서는 밤이 지새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이때부터 그의 연구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구자료들을 검토리하는 한편 화학합성으로 생산된 전통적인 항

대동강고려약공장 김명옥동무

김명옥동무에게는 이 말이 결코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내가 연구하는 새로운 천연광물항생제가 오늘의 현실상천적요를 만족시킬수 있는가. 그렇다면...)

사실 지난 10여년간 아글라클 에센 보랍이 있어 그의 연구사업에서는 그즈음 눈에 띄게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난 기간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새롭게 전개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어느 시작하는것이냐 같았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 못하는 연구가 그대로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수 없어.)

그는 소스라치게 삼성에 깨어났다. 난관앞에서 잠시나마 동요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는 결연히 일어나 집으로가 아니라 실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방에서는 밤이 지새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이때부터 그의 연구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기초연구자료들을 검토리하는 한편 화학합성으로 생산된 전통적인 항

사회주의만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 끝없는 미림승마구락부

미림승마구락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이 말의 친근하게 자리잡은 때로부터 한달 남짓한 나날이 흘렀다. 그 나날에 사회주의의 우리 생활의 웃음꽃을 더해주는 새로운 비람이 일어났다.

승마바람이다.

얼마전 우리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은 사람들의 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요즘은 눈부신 설경까지 펼쳐져 그 풍경 또한 특색있는 이야기에 끌려 이곳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화정서생활은 없어서는 안될 인간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인가.

정갈하게 꾸러진 토사주르며 잔디주로, 불수룩 우렁하게 안겨오는 정적이며 특색있는 천막 휴식장, 훌륭한 형상된 명사의 기암괴석...

흰눈덮인 미림지구에 승마바람 분다

미림승마구락부의 야외 풍경이 눈부신 설경과 어울려 이제 룠게 안겨왔다.

주로를 따라 말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마수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경쾌했었는가.

한겨울의 찬바람은 모든것을 얼얼하게 얼어붙여놓았지만 그것을 맞받아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우리도 함께 말을 타고 백색 광야를 달리는듯 한 심경에 휩싸이게 되었다.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은 먼저 실내승마훈련장에서 숙련을 해야 합니다.》

동행하던 미림승마구락부의 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먼저 승마부사소로 안내하였다.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은 먼저 실내승마훈련장에서 숙련을 해야 합니다.》

동행하던 미림승마구락부의 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먼저 승마부사소로 안내하였다.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은 먼저 실내승마훈련장에서 숙련을 해야 합니다.》

동행하던 미림승마구락부의 한 일꾼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먼저 승마부사소로 안내하였다.

미림지구에 승마바람 분다

흰눈이 내리는 미림지구에 일어나는 승마바람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뜨거워져 갔다.

《승마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미림승마구락부의 단골손님들이 불리우는 정취구역에서 사는 올해 23살 난 오철만동무였다.》

승마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미림승마구락부의 단골손님들이 불리우는 정취구역에서 사는 올해 23살 난 오철만동무였다.

승마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미림승마구락부의 단골손님들이 불리우는 정취구역에서 사는 올해 23살 난 오철만동무였다.

승마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미림승마구락부의 단골손님들이 불리우는 정취구역에서 사는 올해 23살 난 오철만동무였다.

미림승마구락부

의 곳곳에 로라스 케트장을 꾸려놓으니 로라스케트라는 바람이 불고있는데 승마바람이 불리우면 승마바람과도 들어맞는 것이라고 하시며 말을 타고 달려 문화정서생활의 한매를 즐기며 승마바람을 받은 손님들의 수는 수천명을 헤아린다고 봉사원께서는 궁지에 넘쳐 말하셨다.

그들중에는 청년대학생들도 있고 평양화력발전원합기업소로 동자며 가정부인들, 나이런 소년단원들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말을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지만 봉사원들의 적극적인 방조가 있어 누구나 말하는 요령을 익혀 버렸다고 한다.

말은 흥당우루를 아주 좋아하니 말과말의 첫인사를 흥당우루로 하는것이 좋다. 말장동이며 목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쓸어도 주면서 애무를 표시하면 말과인사 친숙해진다. 말과 함께 몸의 통로를 맞추면서 교배를 조절하거나 박차를 가하는 방법으로 말타기를 할수 있다. ...

봉사원들의 설명을 하나하나 새겨며 말타기를 꾸준히 하면 청년단원인 경우에는 한주일이면 어지간히 말을 자유롭게 다룰수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열기왕성한 시절에 누군들 승마의 세계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나.

한말한말의 말이며 하나하나의 봉사시설에도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어 더더욱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미림승마구락부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편리한 승마환경을 보장해주시기 위해 친히 말을 타고 주로를 달리시며 기마주르의 상태를 세세히 살펴보신분은 과연 어느분 이시었는가.

승마운동은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지금 평양시

미림승마구락부

우리가 피로회복원인으로 들어섰을 때 첫눈에 띄운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현대적인 기계들이 질서있게 들어찬 운동실이었다.

노깃기운동기, 달리기운동기, 자전거운동기 등 수많은 기계마다에는 손님이 땀을 흘리며 운동에 열중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 재질이 좋은 우리 인민, 만산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를 굽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방금 달리기운동기에서 내린 한 대학생에게 소감을 물었다.

《운동이 얼마나 거뜨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이 비친 그의 말을 듣고나니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흥겨워졌다.

의자식진인안마기를 리용한 손님들의 평가도 좋았다. 《기계가 없었기때문에 여러가지의 충격이 온몸을 자극하는데 꽤 재미있어 이르 말할수 없다.》

《안마기를 리용하니 머리와 목, 잔등과 허리, 팔다리는 물론 손목과 발목, 손바닥과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몸의 피로가 다 풀린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상급의 조건을 갖춘 안마실에서 봉사받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기쁨을 금치 못하셨다. 특색있게 꾸러진 목욕실 또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피로회



얼마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면서 받아안았던 격정이 지금도 때때로 마음의 금슬을 울린다. 특히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볼 때 받아들인 충격은 참으로 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라시던 말인 《애봉》을 생생하게 형상한 탑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아 자리의 뜻을 되새기고있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듯 동행하던 일꾼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말과 더불어 전해지는 절세위인들의 위인상에 대하여 말하자면 정말 놀이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격정의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와 영광만을 쫓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꾸라뜨릴것입니다.》

우리 승령님께서 환생 소중히 간직하고계신 백마에 대한 추억,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감회깊이 회고하신 충실한 백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인민은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피곤에 물려 잠시 졸고계셨던 승령님을 돌려 말을 가두어붙이고 힘겹게 험한 자외우렁을 오르내리던 백마에 대한 이야기며 그의와의 리별을 예감하고 눈물을 뉘던 백마에 대한 추억, 그 2년동안 비발치는 탄막

시던 한복의 그림속에서 살아숨쉬는듯 한 그 나날의 백마는 조국해방전쟁의 길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전설적인 존재처럼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어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도 어려실 때부터 총과 함께 말과 인연을 맺고 그 혁명의 폭풍우를 용감부싸하게 헤쳐오셨다.

말타기와 총쏘기에서 뛰어난

러 조국전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조선혁명, 장군님과 함께라던 시련도 영광, 기쁨도 영광이던 인생의 철리를 가슴에 팡팡 쏘아박은 선군혁명력사를 우리 인민은 《애봉》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그럴수록 여기 혁명사적교양실에 《애봉》의 탑상을 세우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하한 뜻이 어려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환생생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신사양의 세계를 끝없이 이어가시며 미림지구에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현대적인 승마문화의 중심, 보급기지를 꾸려주시는 불멸의 영도업적기 가슴을 더욱 세차게 울려주었다.

먼 후날에도 우리 후대들은 뜻깊은 이곳에서 《애봉》을 바라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사회주의문명이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꽃피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장으로 깊이 절감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위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전설에만 선남, 선녀가 나온 다다나.

사진속에 비친 저 모습들을 보시라.

얼마나 멋쟁이들인가.

중군 승마모에 보기만 해도 경쾌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우아한 승마복, 변색되는 목구두... 미림승마구락부에 말을 타러 온 손님들은 누구나 승마부사소에 둘러싸여 멋진 승마복과 승마용품들을 착용한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미적기호에 맞게 승마모에 승마복의 색깔도 여러가지이다. 옷이 날개라고 여겨 보던 그 옛날 전장에 서 용맹했지만 말만 무사를 방불케 하고 이룬 한기마수를 편상케 하기도 한다.

절로 용맹이 샘솟는듯 손님들마다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기세충천 달릴 기세로 실내승마훈련장으로 향한다.

본사기자 김명훈

뜻깊은 말잡살에서

《말과 더불어 전해지는 절세위인들의 위인상에 대하여 말하자면 정말 놀이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격정의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와 영광만을 쫓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로 고꾸라뜨릴것입니다.》

우리 승령님께서 환생 소중히 간직하고계신 백마에 대한 추억,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감회깊이 회고하신 충실한 백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인민은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피곤에 물려 잠시 졸고계셨던 승령님을 돌려 말을 가두어붙이고 힘겹게 험한 자외우렁을 오르내리던 백마에 대한 이야기며 그의와의 리별을 예감하고 눈물을 뉘던 백마에 대한 추억, 그 2년동안 비발치는 탄막

선남, 선녀들의 기쁨 사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위탁하고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전설에만 선남, 선녀가 나온 다다나.

사진속에 비친 저 모습들을 보시라.

얼마나 멋쟁이들인가.

중군 승마모에 보기만 해도 경쾌하고 탄력이 느껴지는 우아한 승마복, 변색되는 목구두... 미림승마구락부에 말을 타러 온 손님들은 누구나 승마부사소에 둘러싸여 멋진 승마복과 승마용품들을 착용한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미적기호에 맞게 승마모에 승마복의 색깔도 여러가지이다. 옷이 날개라고 여겨 보던 그 옛날 전장에 서 용맹했지만 말만 무사를 방불케 하고 이룬 한기마수를 편상케 하기도 한다.

절로 용맹이 샘솟는듯 손님들마다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기세충천 달릴 기세로 실내승마훈련장으로 향한다.

본사기자 김명훈

풍력에너지기용의 발전추세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책들을 풀어야 하며 태양에너지기, 풍력에너지기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벌여 그 리용전량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풍력에너지기는 환경오염이 없고 풍부할뿐 아니라 부단히 재생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미래를 대표하는 에너지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세계적인 풍력발전능력은 2억 846만 6000kW에 달하였다.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도 471만 2000kW의 풍력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되었다.

롯데나 풍차에 의한 재분과 물풍기와 같이 인간이 바람의 힘을 리용한 력사는 매우 오래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풍력에너지기를 전력생산에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시작하였는 1980년대부터이며 1990년대에 이어 세 세기에 들어오면서 제로공화, 전력전자공학, 정

널리 도입되고있는 콘크리트보온판부재

자료에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에 콘크리트보온판부재를 많이 받아들이고있다.

콘크리트보온판부재는 두께의 콘크리트판이 폴리스티렌폼을 안아놓은 형태로 만든 부재로서 높은 세기와 보온기능을 다 가지고있는 조립식부재이다.

보통콘크리트보온판은 건설을 용이하게 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지만 보온층을 따로 시공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있었다. 콘크리트보온판부재는 구조적으로 광폭의 콘크리트판과 가운데의 보온층이 이루어졌으며 광폭의 콘크리트판은 연결

본사기자 김성준

다음 주에 진행될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

전문기들과 애호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다음 주에 계속 벌어지게 된다.

20일부터 삼지연에서 시작된 고산, 거리서경기기가 25일까지 진행된다. 경기에는 소백수, 판도봉, 장사산, 사자봉, 성천장계곡의 남녀선수들이 참가하고있다.

대성산, 해물, 평창철도국, 장사산, 장사산체육단 등의 남녀선수들이 출전하는 짧은주루속도빙상경기(1, 2급)가 23일부터 26일까지 빙상관에서 있게 된다.

25일과 26일에 속도빙상, 스케이팅, 크로스컨리, 추후과 삼지연에서 각각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민물인삼》— 미꾸라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물이나 미꾸라지같은것도 많이 길러야 합니다.》

미꾸라지가 다른 물고기들과 특별히 다른것은 몸결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미끈미끈한 점액이 있는것이다. 타우린은 열분해가 잘되지 않고 독물이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생성능이 높기때문에 간보호와 질병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비타민A가 많아 세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므로 호흡기점막과 피부를 튼튼하게 해준다.

최근에 미꾸라지에 로화방지 효과가 높은 로이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은 필수영양성분들이

본사기자 김성준

